



극동러시아 동향 리포트

Contents

- 통계로 본 이슈
 - 2018년 1분기 러시아 컨테이너 항만 순위 발표
- 이슈페이퍼
 - 제8차 한러극동포럼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극동러시아 주요 동향
 - 러시아 정부, 극동지역 개발위해 537억 루블 예산 배정
 - 중국-러시아, 극동 지역 개발 위한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 러시아, 세계 무역 마찰 속 중국과 긴밀한 경제협력관계 구축
 - 러 가즈프롬, 한국과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 논의 재개
 - 금년 5월까지 5개월간 러시아 항만 및 철도 물동량 증가
- 주요 통계
 - 2018년 1~4월 극동지역 국가별 수출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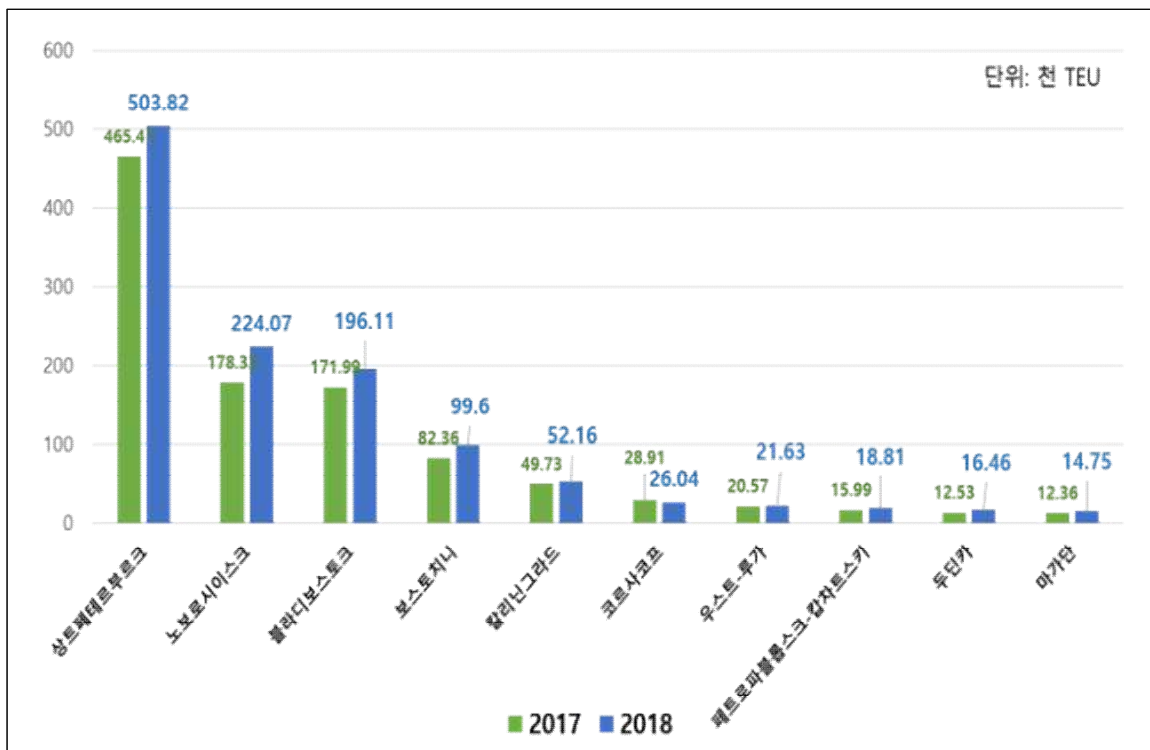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통계로 본 이슈

2018년 1분기 러시아 컨테이너 항만 순위 발표

2018년 1분기 러시아 컨테이너 항만 물동량 순위



자료: <http://infranews.ru/> (검색일: 2018년 6월 20일)

- 2018년 1분기 물동량 기준 상트페테르부르크 항만이 작년에 이어 1위를 차지함
 - 2017년 1분기 물동량은 46만5,410 TEU, 2018년 1분기는 50만3,820 TEU로, 전년 동기 대비 8.3%가 증가했음
 - 작년에 이어 물동량 기준 러시아 컨테이너 항만 순위는 1위 상트페테르부르크, 2위 노보시비르스크, 3위 블라디보스토크로 변동이 없음



- 전년 동기 대비 노보로시이스크 항만 물동량은 25.7%, 블라디보스토크 항만 물동량은 14% 증가했지만, 점유율은 각각 18.7%와 16.4%로 근소한 차이를 보임
 - 코르사코프 항만의 경우 연안 물동량은 증가했으나, 수출입 물동량은 줄어들어, 전년 동기대비 9.9% 감소했음
 - 보스토치니 항만의 경우 수입 컨테이너는 감소했으나, 수출 및 통과 컨테이너는 늘어나, 전년 동기대비 20.9% 증가함
- 주요 러시아 컨테이너 항만 중 극동지역 항만은 블라디보스토크, 보스토치니, 코르사코프,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스키, 마가단 등 총 5개로, 상트페테르부르크 항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컨테이너가 극동지역 항만에서 처리되고 있음

■ 참고자료 : <http://infranews.ru/issledovaniya/51407-kontejnernyj-otchet-za-1-kv-2018-goda-ch-7/>(검색일: 2018년 6월 20일)

<http://seanews.ru/2018/06/19/контейнерооборот-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검색일: 2018년 6월 20일)

김엄지 연구원

051-797-4776, umjikim@kmi.re.kr



이슈페이퍼

제8차 한러극동포럼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5월 16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제8차 한러극동포럼이 개최됨
 - 이번 행사에 러시아 측 인사로는 타라센코 연해주지사, 롤리크 연해주의회 의장, 무르지치 극동개발기금 선임국장 등이 참석함
 - 한국 측 인사로는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이석재 주블라디보스토크총영사관 총영사, 김성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협력총괄팀장 등이 참석함
 - 극동개발, 수산·어선건조, 북극항로·물류, 에너지 등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됨

세션 1. 극동개발의 새로운 전개와 대응방안

- 페추르치크 극동개발공사 부사장이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해외투자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가시적인 성과가 단기간에 보이지 않지만, 입주기업의 꾸준한 증가로 극동지역의 성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내 입주기업은 약 650개이며, 이 중 한국기업은 5개, 일본 기업은 3개, 중국기업은 20개로 주요 인근국가들의 입주실적이 여전히 미비한 실정임
 - 주로 나데진스카야, 캄차트카 선도개발구역에 진출해 있음
 -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극동개발공사는 2018년 말까지 하바롭스크, 캄차트카 등에서는 전기, 수도 등 기본적인 산업단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밝힘
- 페긴 캄차카 개발공사 사장은 캄차카는 다양한 환경 조건, 대규모 내수시장 보유 등 여러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농업, 건설업 등 주요 산업의 성장 가능성



이 매우 높게 평가되어 외국기업들의 꾸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함

- 한국 측 발표자였던 성원용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은 극동지역을 둘러싼 여러 국가들 간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 향후 우리나라는 극동지역의 축이 어느 지역으로 변화할 것인지 예상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한반도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보 차원에서 극동지역 국가의 적극적인 협력과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이현주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극동지역 산업단지의 기회요인으로 4가지를 꼽았음
 - △적정수준의 내수시장과 수출증대, △한-러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풍부한 경험 보유, △프리모리예-1,2 등 극동지역의 주요 운송로가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 장점이 크다는 점,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로 극동지역의 사업 확대 가능성이 높다는 점
 - 극동지역 산업단지의 위험요인으로서는 낮은 인구밀도, 낙후된 수송, 교통 인프라 등이 있으며, 기회요인과 도전요인을 기반으로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세션 2. 극동지역 수산 현대화와 협력방안

- 극동지역 수산 및 양식산업 투자 기회를 주제로 자부즈나 극동투자수출지원청 분석관은 극동개발기금으로 양식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양식업을 위한 투자 지원 및 방안 등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음
 - 양식업의 온라인 투자 경매 관련 러시아 중앙정부의 승인이 완료된 상태로, 향후 온라인을 통한 수산물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복잡하고 다양한 절차들이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됨
 - 그 외에도 레루한 극동수산거래소 사장은 2015년 5월부터 전자경매를 실시했으며, 2017년 5월 전자경매 후 외국으로 수출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장홍석 수산정책연구실장은 나지모바 어항기반 수산가공물류단지 사업을 한러 관련기업들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Biz 모델로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나 여러 해결과제가 산재해 있다고 설명함
 - 비중이 낮은 산업으로 관련 전문가 집단이 부재하며, 중앙정부는 적극적인 외투를 유도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경우 지역의 기업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 러시아 내부의견의 수렴이 어려움
 - 나지모바 어항기반 수산가공물류단지 프로젝트는 한러수산투자협력의 이정표가 될 수 있으며, 향후 한러 수산투자협력의 규모를 제고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양국 정부의 협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산업연구원 김학기 연구위원은 러시아는 어선의 부족 및 노후화 등의 이유로 사고와 기술적인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상황 타개를 위해서는 어선 신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이를 위해 러시아 정부는 수산업 육성을 위한 어선 건조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선 건조와 수산가공분야에 대해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조업권을 활용하는 정책을 진행 중에 있음
 - 최근 한국 조선업의 경기 침체로 중소 조선소 및 선박수리 기업의 러시아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며, 선박 수리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 또한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밝힘

세션 3. 북극항로와 복합운송의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 오가이 세르게이 네벨스코이 국립해양대학교 총장은 북극항로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쇄빙선 이용이 필수적임에 따라 쇄빙선의 이용요금 또한 북극항로 운항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음
 - 쇄빙선의 역할이 중요함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원자력을 이용한 쇄빙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2019년 시범운행을 계획하고 있음



- 또한 극지에서 적응하고 활동할 수 있는 인력양성센터를 건립해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한 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함
 - 이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지성 전문연구원은 북극항로 상용화를 위해서는 화물 불균형, 환경 문제 등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존재함에 따라 내외부적 요인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중단기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함
 - 즉 부분적인 북극항로 활성화 및 북극항로 연계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함
- 극동러 TSR 활용 복합운송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한 극동철도청 프루드니코프 수석 엔지니어는 극동러 TSR을 이용한 물동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프리모리에 1,2를 통과한 컨 화물이 2016년 대비 2017년 약 2.2배 증가했다고 발표함
- 특히 FERMI-보스토치니 할로샤 부장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국제교통네트워크 사업 추진을 통해 기존 개발 프로젝트를 통합하고 다자간 협력, 러시아, 한국, 일본 등 주변국의 협력을 기반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중국, 러시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경쟁력있는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관광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물류네트워크 개발을 위해 관련 인프라의 통합 및 통합적인 차원의 지역개발 수립이 요구됨

세션 4. 극동지역 석유가스 협력방안

- 최근 러시아는 2035년까지 25%의 LNG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임
- LNG 수입국 1위는 일본, 2위 한국, 3위 중국이며, 저장탱크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함
 - 또한 러시아는 기존의 에너지 물류인프라를 활용해 극동지역 내 석유화학산업 육성 및 대외 에너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연해주 석유화학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김호선 민간위원은 에너지 전환 전략은 지속가능한 전략과 맞물려 유기적인 계획 및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가스라는 재화를 통해 한-러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 국 에너지 산업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 또한 국민대학교 이상준 교수는 한-러 LNG 수입 물동량 증대에는 공감하나 LNG 시장이 점점 유연하게 변화되고 있는 시점이라 판단되며, 러시아는 LNG 공급자 입장에서 가격 안정성 추진이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팔라에바 이리나 사할린 경제개발부 차관은 2023년 한국과 장기공급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한국 측은 신규 공급업체를 선정해야 하나 다수의 공급업체가 존재함에 따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음

시사점

- 4월 남북 정상회담과 6월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의 근본적인 전환점이 되었으며, 한반도 긴장 완화 추세가 공고화되고 있음
 - 이로서,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안보 및 경제 지형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 협력 또한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됨
 -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뿐만 아니라 극동러에서 양국 협력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 9개 분야의 협력다리를 건설하자는 '9브릿지'를 제안했으며, 러시아 정부 또한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 선도개발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및 개편해 외국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음
 - 또한 한러 무역규모는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연해주 지역 내 한국기업이 보유한 기술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 교류가 활성화 되는 등 경제 분야에서도 호조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정치·경제적 흐름을 바탕으로 철도, 가스, 전력 등 남북러 3각 경제 협력사업을 재개하고 북극항로, 항만개발 등을 포함한 '9브릿지'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하며,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협의 도출이 필요한 시점임



김엄지 연구원

051-797-4776, umjikim@kmi.re.kr



극동러시아 주요 동향

러시아 정부, 극동지역 개발위해 537억 루블 예산 배정

- 최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러시아 총리는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537억 루블(약 846백만 달러)의 예산 배정을 승인함
 -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인 조건(normal conditions)'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이며,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의 개발을 장려할 계획임을 밝힘
 - 정부의 공식 성명에 따르면 현재 유치원, 중·고등학교, 대학교, 병원, 체육시설 및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개선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러시아 정부가 승인한 예산은 극동지역 개발의 현대화(modernization), 수리(repair), 재건축 및 건축 등을 위한 191개의 프로젝트에 할당될 예정임
 - 해당 예산은 2018-2020년 정부 예산에서 배정될 계획임
- 러시아는 이번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극동지역의 사회, 엔지니어링 및 운송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시킴과 동시에 극동지역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노력은 지난 2010년 이후 꾸준히 이어져 왔음



- 지역불균형 해소 및 경제적 수준 향상을 목표로 러시아는 지난 몇 년 동안 정부 차원의 제도 및 개발 프로그램 등 다양한 메커니즘을 도입한 바 있음
- 자유항 지정, 극동지역개발 기금, 투자자들을 위한 인프라 보조금 제공 및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세금 공제 혜택 등을 도입함
- 러시아에 있어 극동지역 개발은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만큼 정부차원의 개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번 예산 투입을 통해 지역 개발을 더욱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극동 우선발전과제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극동지역 보건의료발전 프로그램이 승인되어 올해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임

■ 참고자료 : http://www.xinhuanet.com/english/2018-06/19/c_137263357.htm(검색일: 2018년 6월 19일)

신수용 전문연구원

051-797-4780, shinsy@kmi.re.kr



중국-러시아, 극동 지역 개발 위한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양국이 긴밀한 경제협력관계 구축을 하자는 방향에 합의를 이룸
 - 양국은 무역 확대 외에 주변 국가들과의 교통 연결성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힘쓰기로 함
- 6월 8일 시작된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 기간 중 러시아와 중국은 중국,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고속화물 철도노선을 설립하기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함
 - China Railway Group은 러시아 모스크바-카잔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 위해 약 367백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한바 있음
- 또한 중러지역협력개발투자기금(RCIF)과 중국 청통 홀딩스 그룹은 러시아의 산업, 교통 및 관광 인프라 개발에 초점을 맞춰 10억 달러 규모의 공동 산업투자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함
- 동 산업투자기금으로 인해 특히 극동 지역의 투자가 기대되며 동 지역 발전은 중국의 '일대 일로'와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 전략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양국이 쉽게 합의할 수 있었음



- 또한 헤이룽장성 국경 도시인 헤이허(Heihe)와 러시아 블라고베시첸스크(Blagoveschensk)를 연결하는 국경 대교는 2016년 12월에 시공을 시작함
 - 동 국경 대교는 2019년에 개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한편 러시아는 극동 지역 투자 및 사회 경제적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바이칼호의 동쪽에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s)을 신설함
 - 극동 지역의 인프라 개선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북동부와의 동반 성장을 추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 참고자료 : https://news.cgtn.com/news/3d3d414e796b444d78457a6333566d54/s hare_p.html (검색일: 2018년 6월 13일)

김병주 연구원

051-797-4784, bjkim17@kmi.re.kr



러시아, 세계 무역 마찰 속 중국과 긴밀한 경제협력관계 구축

- 러시아와 중국 양국 정상은 상호 우호메달을 수여하고¹⁾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마찰이 심화되는 가운데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기로 함
 - 6월 8일 시작된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 기간 중 러시아철도공사와 중국철도공사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고속 화물철도노선을 설립하기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함
 - 한 러시아 미디어는 러시아 철도는 또한 2036년 완공을 목표로 유라시아 화물노선 9,000km 연장의 철도네트워크를 개발 중이라고 보도함
 - 유라시아 프로젝트는 중국철도공사의 네트워크와 유럽에서 건설중인 고속화물 네트워크인 Euro Carex를 연결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밝힘
 - 중국 해외개발협회 사무총장은 고속 화물철도노선은 물류 촉진, 무역 증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간 투자 촉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함

1)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7년 7월 러시아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성 안드레이 훈장을 수여했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올해 6월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신설한 우의훈장을 수여함



통장-니주르네닌스코예 교량건설



자료: www.news.cgtn.com

헤이허-블라고베센스크 교량건설



- 또한 푸틴 대통령은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러시아 유라시아경제연합전략이 양국이 이익을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 극동의 발전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함
 - 유라시아 철도프로젝트에 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기 전 중국과 러시아는 진행 속도가 느리지만 새로운 철도 교량에 대한 계획과 함께 국경 간 운송 연결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힘
 - 중국 헤이룽장성 북동부의 통장과 러시아의 유대인 자치구의 니주네닌스코예(Nizhnelenskoye)를 연결하는 철도 교량은 아무르 강을 따라 양국 국경을 가로질러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첫 번째 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이와 더불어 헤이룽장성 국경도시인 헤이허(Heihe)와 러시아 블라고베센스크(Blagoveshchensk)를 연결하는 다른 국경 대교는 2016년 12월에 시공을 시작했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두 교량 모두 2019년에 개통될 것으로 예상함
- 말라카 해협 이외에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채널을 통한 원활한 교통 연결은 중국 동북 변방 지역에 큰 물류 이점을 부여 할 것이라고 말함
 - 푸틴 대통령은 제18차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담에서 강조한 협력과 한반도 긴장 완화는 모두 러시아 극동 발전을 위한 긍정적 신호이며 극동 지역의 인프라 개선은 중국 북동부의 기회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함



■ 참고자료 : www.news.cgtn.com/ (검색일: 2018년 6월 13일)

공영덕 연구원

051-797-4778, ydkong6053@kmi.re.kr

러 가즈프롬, 한국과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 논의 재개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



자료: www.yandex.ru(검색일: 2018년 6월 20일)

- 러시아 국영가스 기업 가즈프롬(Gazprom)은 한국과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 논의가 재개됐다고 밝힘
 - 일명 남북러 3각 협력의 대표사업으로 널리 알려진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한국측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함

- 마르켈로프 가즈프롬(Gazprom) 부이사장은 최근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의 정치상황이 이미 과거와는 상당히 다르다"며, "한국정부의 프로젝트 논의 재개 요청으로 이미 협상이 진행 중" 이라고 함
 - 앞으로 프로젝트 착수 방안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향후 계획 또한 언급함



- 2008년 9월 가스프롬사와 한국가스공사는 가스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 공동시행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로 시작됨
 - 당시 양해각서에 따라 순조롭게 모든 프로젝트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실행됐더라면, 한국은 2015년부터 매년 750만 톤의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있었을 것임
- 프로젝트의 공동조사 협약은 2010년 6월 24일 체결돼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크 가스수송 시스템의 최종 지점에서 북한을 통해 한국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몇 가지 방안에 대한 최종 연구보고서가 작성되었음
 - 이후 2011년 9월부터 북한과 한국은 러시아와 총 연장 700-800km에 달하는 가스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개별 협상을 벌였지만 남북관계 악화 이후 모든 가스관 협상은 잠정 중단됨
- 한편 강경화 외교부장은 올해 3월 30일 서울에서 열린 에너지 포럼에서 연설하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러시아에서 북한을 통해 한국으로 이어지는 가스파이프라인 건설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한국에 있어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는 현재 중동으로 집중된 에너지 도입선 다변화, 그리고 에너지 안보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가까운 극동러시아와의 연결은 초기비용은 적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렴한 비용으로 가스를 도입할 수 있으며, 대규모 가스를 저장할 필요없이 수요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경제성측면에서 한층 유리한 기반을 가질 수 있음

■ 참고자료 : <https://www.vedomosti.ru/business/news/2018/06/15/772876-gazprom>(검색일: 2018년 6월 15일)



전명수 현지리포터(국립블라디보스톡경제서비스대학교)

070-5044-9502, msjeon1976@gmail.com

금년 5월까지 5개월간 러시아 항만 및 철도 물동량 증가



-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러시아 항만의 처리물동량은 약 3억 2,844만 톤으로 전년대비 약 2.7% 증가함

 - 특히 건화물의 경우 다른 운송수단으로부터 환적된 물동량이 약 9% 증가해 약 1억 5,635만 톤을 기록한 반면, 액체화물은 반대로 약 2.5% 감소해 약 1억 7,208만 톤임

- 지난 5개월간 러시아 항만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곳은 카프카즈 해역에 위치한 항만으로 전년대비 약 47.3% 증가한 약 206만 톤을 처리함

 - 북극해역의 항만 처리물동량은 약 3,200만 톤으로 전년대비 약 9% 증가함
 - 아조프-흑해의 항만 처리물동량은 약 1억 1,087만 톤으로 전년대비 약 6.5% 증가함
 - 극동해역의 항만 처리물동량의 경우 약 8,048만 톤으로 전년대비 약 0.2% 증가함
 - 발틱해역의 항만 처리물동량의 경우 약 1억 301만 톤으로 전년대비 약 1.5% 감소함

- 지난 5개월간 러시아 철도 처리물동량은 약 5억 3,490만 톤으로 이는 전년대비 약 3.5% 증가한 수치이며 화물별 처리량은 다음과 같음

 - 석탄 약 1억 5,680만 톤(5%), 해탄 약 450만 톤(-3.9%), 석유 및 석유제품 약 9,880만 톤(-0.2%), 철광석 및 망간 약 4,680만 톤(+3.7%), 비철금속 약 3,300만 톤(11%), 스크랩 약 530만 톤(-4.8%), 화학 및 광물비료 약 2,530만 톤(6.3%), 시멘트 약 920만 톤(-4.1%), 목재 약 1,960만 톤(2.6%), 곡물 약 1,230만 톤(51.8%), 건설자재 약 5,190만 톤(-1.4%), 산업원료 약 1,440만 톤(-1.2%)

- 러시아 철도 총처리물동량은 약 1조 712억 톤·km로 전년대비 약 4.7% 증가함

■ 참고자료 : <http://portnews.ru/news/259088/>, <http://portnews.ru/news/259669/> (검색일: 2018년 6월 16일)



김은미 현지 리포터(국립극동교통대학교)

051-797-4776, usea1004@gmail.com



주요 통계



2018년 1~4월 극동지역 국가별 수출품목

(단위: 천 달러)

상품명	2018.01.01. ~ 2018.2.28.		
	합계	해외	CIS
합계	7,065,824.3	6,986,260.5	79,563.8
동물	152.5	152.5	
육류 및 가공제품	223.1	223.1	
생선, 갑각류, 문어, 오징어 등	910,355.5	909,988.7	366.8
날생선 및 냉장보관 생선	44.5	44.5	
냉동생선	632,640.4	632,273.6	366.8
연어	9,281.1	9,281.1	
넙치	11,296.5	11,296.5	
가자미	6,034.8	6,034.8	
기타 넙치 종류	11,500.8	11,500.8	
청어	45,450.9	45,127.9	323.0
대구	44,526.0	44,526.0	
명태	389,804.7	389,760.9	43.8
농어	184.5	184.5	
캐비어	93,706.6	93,706.6	
생선 부산물	2,599.5	2,599.5	
생선살(생, 냉장, 냉동)	61,716.9	61,716.9	
훈제 생선 및 어분	197.3	197.3	
갑각류(게, 가제, 새우 등)	196,855.1	196,855.1	
게	162,656.9	162,656.9	
갑각류(조개 류)	9,102.5	9,102.5	
가리비	4,761.2	4,761.2	
낙지, 오징어 및 문어	3,253.6	3,253.6	
기타 갑각류	1,024.9	1,024.9	
갑각류 및 오징어류 제외한 식용 무척추동물	9,798.8	9,798.8	
해삼	465.6	465.6	
성게류	9,100.3	9,100.3	
유제품, 계란, 천연 꿀, 동물성 식품 등	797.3	797.3	
우유, 크림 등	70.6	70.6	
동물성 식품	1,543.1	1,543.1	
사슴뿔, 발굽, 녹용, 거북이 등껍질 등 관련 분말 등	1,517.1	1,517.1	



채소 및 근채류	47.5	42.6	4.9
두초류	32.2	32.2	
식용과일 및 과실 껍질, 참외	2,403.2	2,402.9	0.3
견과류	2,364.4	2,364.4	
커피, 차, 마테 파라과이 차 등	21.2	21.2	
벼	11,336.9	11,336.9	
밀 및 메슬린	1,481.8	1,481.8	
옥수수	9,695.4	9,695.4	
밀가루 및 곡류 제품, 맥아, 전분, 이 눌린, 글루텐	2,826.1	2,818.2	7.9
밀, 밀가루 및 라이밀	2,643.4	2,643.4	
밀 및 호밀을 제외한 다른 곡류의 밀가 루	6.6	6.6	
그로우트, 통밀, 곡물 과립	39.6	31.7	7.9
다른 방식으로 가공된 곡류 및 배아	136.4	136.4	
씨앗 및 과일 추출기름, 기타 과일 및 곡물, 의약품 식물(마초 등)	116,837.8	116,783.9	53.9
비파조용 콩	116,753.0	116,699.1	53.9
천연 셀락, 고무, 수지, 식물 추출물	4.9	4.9	
동식물성 지방 및 오일 및 분해산물, 식용 지방, 동식물성 왁스	14,730.8	14,730.8	
콩기름	14,341.8	14,341.8	
해바라기유, 홍화유 및 면실유	179.7	179.7	
육류, 수산물(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 완제품	1,711.8	1,118.6	593.1
생선 및 캐비어 완제품 및 통조림	696.4	112.2	584.3
연어 캐비어	18.8	18.8	
철갑상어 캐비어 대체품	1.6	0.7	0.9
갑각류 및 무척추 동물 완제품 및 통 조림	960.5	952.6	7.9
설탕 및 설탕제품	196.4	196.4	
감자당 및 무설탕, 자당	54.3	54.3	
카카오 및 그 제품	664.9	664.9	
초코렛 및 카카오 가공 제품	664.8	664.8	
곡물, 밀가루, 전분 또는 우유로 만든 완제품, 밀가루 과자	914.4	829.3	85.1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56.2	56.2	



제빵제과류	524.2	439.1	85.1
야채, 과일, 견과류 등 가공제품	303.8	236.9	66.9
기타 식품	1,189.3	957.4	231.9
알코올 및 비알코올 음료 식초	2,457.7	2,441.3	16.4
생수, 탄산수 및 향신료 첨가 음료	728.9	712.5	16.4
올몰트 맥주	1,195.9	1,195.9	
알코올성 음료 및 리큐어, 기타 주류	368.4	368.4	
보드카	199.3	199.3	
동물 사료 및 음식물류폐기물	42,809.0	42,809.0	
육류, 생선 및 해산물 전분 (비식용)	42,784.1	42,784.1	
담배(타바코) 및 담배 대체품	42.0	42.0	
시가	42.0	42.0	
담배	41.9	41.9	
소금, 황, 석고 재료 및 석회, 시멘트	1,647.7	1,637.6	10.1
광석, 용재 및 재	164,146.8	114,160.4	49,986.5
하소 황철석 포함한 철광석	21,740.2	21,740.2	
니켈	12,463.8	12,463.8	
납	11,631.9	11,631.9	
아연	12,476.3	12,476.3	
주석	57.0	57.0	
텅스텐	4,315.0	4,315.0	
미네랄 연료, 증류 및 석유 제품, 광 랍, 버튬미너스 물질 등	3,211,059.2	3,208,373.9	2,685.3
석탄	325,996.9	323,391.2	2,605.7
역청탄	321,648.8	319,043.1	2,605.7
기타 석탄	4,348.1	4,348.1	
갈탄, 흑석을 제외한 갈탄	24,013.7	24,013.7	
이탄(peat)	566.2	566.2	
역청탄에서 추출한 원유 및 원유 제품	1,162,461.5	1,162,461.5	
역청탄에서 추출한 원유 제품(원유 제 외)	228,201.6	228,122.0	79.5
경질유 및 그 외	19,715.1	19,715.1	
가솔린(바이오 디젤 비함유)	5,104.0	5,104.0	
케로신	831.6	831.6	
디젤 연료(바이오 디젤 비함유)	2,855.0	2,855.0	
액체 연료(바이오 디젤 비함유)	199,275.5	199,275.5	
기타 용 액체연료 (바이오 디젤 비함	42,536.2	42,536.2	



유, 1% 이하 황 함량)			
기타 용 액체연료 (바이오 디젤 비함 유, 1% 이상, 2% 이하 황 함량)	156,739.3	156,739.3	
유류	420.4	340.9	79.5
LNG	1,423,679.6	1,423,679.6	
프로판	223.3	223.3	
석유코크스	0.1	0.1	
전기	45,601.4	45,601.4	
무기화학제품	13,063.1	12,916.9	146.2
붕소 산화물 및 붕산	12,954.1	12,900.4	53.7
붕산염, 과산화붕산염	94.1	10.3	83.8
유기화학물질	411.1	411.1	
비환식알콜 및 그 제품	0.1	0.1	
제약품	251.8	87.4	164.3
혼합 및 비혼합 의약품(3002, 3005, 3006 제외)	166.9	2.6	164.3
비료	5.8		5.8
2-3개의 영양소를 함유한 비료	5.8		5.8
유제 및 염색 추출물, 염료, 안료, 바 니시, 잉크	23.1	22.8	0.3
비수성 페인트 및 염료	0.8	0.7	0.2
에센셜 오일, 향수, 화장품 및 화장실 용품	788.2	751.2	37.0
비누, 세제, 윤활제 왁스 및 청소용 왁스, 몰딩, 점토, 치약	278.8	257.9	20.9
세제, 계면 활성제(비누 제외)	28.4	23.3	5.1
프로틴, 전분, 접착제, 효소	0.2	0.2	
기타 화학제품	203.5	70.1	133.4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제품	861.0	368.3	492.8
에틸렌 중합체	41.7	41.7	
프로필렌 중합체	13.9	13.9	
고무 및 고무제품	176.6	107.0	69.6
타이어, 고무타이어	12.3	12.3	
미가공 가죽(천연모피 제외)	20.1	20.1	
소가죽	20.1	20.1	
가죽제품, 마구, 여성용 가방 및 그	11.1	4.4	6.7



유사 제품			
자연 및 인공 모피 및 모피 제품	147.5	147.5	
모피 원료 및 모피	99.8	99.8	
목재 및 목재제품 및 숯	360,159.0	360,159.0	
연료용 목재(통나무, 나뭇가지 등)	4,532.1	4,532.1	
침엽수 목재톱밥 및 나무부스러기	1,157.3	1,157.3	
껍질 제거 및 가지치기 된 비가공 목재	201,942.8	201,942.8	
침엽수 비가공 목재(목재 44031)	112,832.9	112,832.9	
소나무 비가공 목재(목재 44031)	738.9	738.9	
가문비 나무 및 전나무 비가공 목재(목재 44031 제외)	68,240.6	68,240.6	
침엽수 비가공 목재(목재 44031 제외)	43,853.4	43,853.4	
활엽수 비가공 목재(목재 44031, 44034 제외)	89,109.9	89,109.9	
참나무 비가공 목재(목재 44031 제외)	12,254.9	12,254.9	
자작나무 비가공 목재(목재 44031제외)	54,923.4	54,923.4	
포플러 및 백양나무 목재(목재 44031 제외)	5,564.3	5,564.3	
기타 비가공 목재	16,367.3	16,367.3	
비가공 재 재목(44031 목재 제외)	15,313.6	15,313.6	
목재 및 톱밥 합판 (두께 6mm 이상)	98,199.0	98,199.0	
침엽수 목재 및 톱밥 합판 두께 6mm 이상	65,141.2	65,141.2	
열대 품종 44072를 제외한 경목 목재 및 톱밥	33,057.8	33,057.8	
오크나무 목재 톱밥 합판 6mm 두께 이상	12,341.9	12,341.9	
물푸레 나무 목재 톱밥 합판 6mm 두께 이상	9,769.1	9,769.1	
클래딩용 시트, 접착 합판(두께 6mm 미만)	47,137.6	47,137.6	
가공(프로파일링) 목재	46.5	46.5	
목재 합판	0.1	0.1	



플라이 우드	0.4	0.4	
부엌용 목재 액세서리 및 장식품	1,706.3	1,706.3	
나무인형 및 기타 장식 제품	11.0	11.0	
기타 목제품	1,536.0	1,536.0	
밀짚,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 바구니 등	192.0	1.2	
목재, 재활용 종이, 판지(폐지, 폐기물)	399.2	192.0	
목재, 재활용 종이, 판지	249.3	399.0	0.2
종이 및 판지, 그 제품	249.3	249.3	
서적, 신문, 인쇄 제품, 원고 등	10.7	10.7	
면	4.4	1.9	2.5
면섬유 85% 이상, 표면 밀도 200g/m2 이하 면 직물	2.5		2.5
화학섬유	0.7		0.7
펠트 및 부직 재료, 밧줄, 로프 및 케이블 및 그 제품	76.1	76.1	0.0
카펫 및 기타 섬유 바닥 깔개	1.0	1.0	
특수 원단, 레이스, 마감재, 자수 등	2.6		2.6
이중 방직용 섬유, 기술용 섬유 제품, 코팅 섬유 등	1.8	0.8	1.1
의류 및 의류용 액세서리(니트, 뜨개질 제품 제외)	13.2	3.8	9.4
의류 및 의류용 액세서리(니트, 뜨개질 제품)	68.5	22.5	46.0
남성용 외투, 비옷, 자켓	5.2	0.8	4.5
여성용 외투, 비옷, 자켓	31.8		31.8
남성용 바지, 정장바지, 반바지 등	8.4	8.4	
여성용 정장, 치마, 바지 등	3.9		3.9
기타 섬유 완제품, 의류 및 직물 등	24.0	23.5	0.5
신발, 게이터 및 기타 유사제품	500.6	10.8	489.9
정품 가죽 신발	435.3	0.4	435.0
모자 및 모자 재료	1.6	1.6	
우산, 양산, 지팡이, 승마용 채찍 및 부품	0.1	0.1	
가공 깃털 및 인공 꽃, 머리카락	0.2	0.2	
석재, 석고, 시멘트, 석면 등 유사한	84.1	30.6	53.5



물질로 만든 제품			
세라믹 제품	33.8	1.6	32.2
유리 및 유리제품	109.2	106.2	3.1
병, 앰플, 유리용기, 통조림용 캔	0.9		0.9
진주, 귀속 및 귀금속, 동전 등	1,750,375.5	1,730,207.6	20,168.0
철금속	94,893.4	94,892.6	0.8
철금속 폐기물 및 스크랩	57,808.3	57,808.3	
철강 및 비철강 반제품	37,076.2	37,076.2	
철강 및 비합금철강 압연 제품 (폭 600mm 이상), 열압연	1.8	1.8	
철강 및 비합금철강 압연 제품 (폭 600mm 이상), 클래드	0.7	0.7	
기타 철강 및 비철강 로드	2.2	2.2	
철 및 비합금 특수 모형 프로파일	3.1	3.1	
기타 합금 로드	0.3	0.3	
철금속 제품	38,921.9	38,770.1	151.7
비철 금속 파이프, 튜브 및 중공 프로 파일(주철 제외)	11,882.0	11,882.0	
파이프 및 기타	273.6	273.6	
파이프 및 중공 프로파일	16.9	16.9	
구리 및 구리제품	310.6	287.6	23.0
구리 폐기물 및 스크랩	273.0	273.0	
비철금속 및 그 제품	20,048.2	19,974.9	73.3
니켈 및 그 제품	0.0	0.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제품	19,736.2	19,687.3	48.9
미가공알루미늄	19,659.5	19,659.5	
0.2mm 두께 이상 알루미늄 플레이 트, 스트립, 시트 등	0.3	0.3	
0.2mm 두께 이상 알루미늄 호일	0.1	0.1	
기타 서멧 제품	1.4		1.4
티타늄 및 그 제품	1.4		1.4
비금속 가전제품, 비금속 숟가락, 포 크, 나이프 및 비금속 부품	535.2	299.7	235.5
기타 비금속 제품	30.6	22.4	8.2
기계 및 장비, 그 부품	17,947.8	15,682.6	2,265.2
압축 점화가 있는 내연 피스톤 엔진 (디젤 및 세미 디젤 엔진)	0.6	0.6	



냉장고, 냉동고 및 기타 냉동 장비	23.6	13.3	10.3
가정용 냉장고	5.0		5.0
불도저, 그레이더, 플래더, 스크레이퍼, 굴삭기, 도로 롤러 등	9.7	9.7	
세탁기	31.2	8.8	22.4
세탁기(가정용 및 상업용)	31.2	8.8	22.4
평삭기, 목공 드릴링 기계 등	13.0	13.0	
볼 베어링 및 롤러 베어링	7.5	7.5	0.0
전자기계 및 장비, 부품, 녹음 및 재생 장비 및 그 부품	7,429.6	7,054.8	374.9
전동기 및 발전기(전력발전기 제외)	285.6	285.6	
전기 발전기 및 변환기	11.8	11.8	
전기 변압기, 인덕터 및 초크, 정지형 변환 장치	36.7	29.0	7.7
전기 배터리	31.9	27.5	4.3
음향장비 및 방송수신 장비	36.4	36.4	
텔레비전 수신 장비, 프로젝터 등	135.3	135.3	
전선, 광섬유 케이블(동축 케이블 포함), 케이블	1,128.3	1,122.5	5.8
전동차량 및 철도 기관차량 및 부품, 선로 장비	198.3	175.3	22.9
철도용 및 트램 차량, 비표준화물 마차	22.9		22.9
철도 및 트램 제외 육로 운송수단의 부품 및 부속품	302.9	264.7	38.2
자동차 외 이동수단(8702 제품 제외)	64.5	64.5	
8701-8705에 해당하는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	227.7	199.9	27.8
항공기, 우주선 및 그 부품	133,225.9	133,204.9	21.0
선박 및 부유 구조물	129,070.4	129,069.8	0.6
크루즈선, 관광용, 페리, 화물 및 바지선	7,316.0	7,316.0	
광학 사진 및 영화 촬영 장비, (정밀) 의료기기 및 장치, 부품 및 액세서리	3,450.8	3,235.7	215.1
악기 및 부품	2.9	2.9	
가구, 침구, 가구 부속품, 램프 및 조명장비, 조립식 가구	515.5	440.3	75.2



장난감, 게임 및 스포츠 장비, 부품 및 악세서리	184.9	108.9	76.0
기타 완제품	16.1	6.2	10.0
예술작품, 수집품 및 골동품	253.7	253.7	

자료: 극동지역 관세청 자료 (검색일: 2018년 6월 20일)